

가정에서 온 성도와 함께 드리는

# 온라인 예배 메뉴얼



길목 지음

## 지은이\_ 길목 이길주



C.S.I Bridge 대표  
주바이블 성경연구커뮤니티 대표  
유튜브 <길목TV>, 팟캐스트 <길목에서 성경토크> 운영자  
mylord.kr 운영자  
lawacts@daum.net

가정에서 온 성도와 함께 드리는

# 온라인 예배 메뉴얼



# 목차

## 1.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갑자기 찾아 온 온라인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할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할 수 있다

헌금이 줄어 들 수 있다

활동이 위축되고 교세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2. 온라인 예배 실전으로 준비하기

교회에서 준비

실시간 중계 프로그램

스마트폰으로 중계할 경우

노트북으로 할 경우

기존 방송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유의해서 구성해야 할 순서

찬양대

헌금

설교

주보

성도들 준비

예배준비

방송시청준비

헌금

## 3. 가정예배로 드리기

예배당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하기

예배순서 제안

## 4. 참고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안드린다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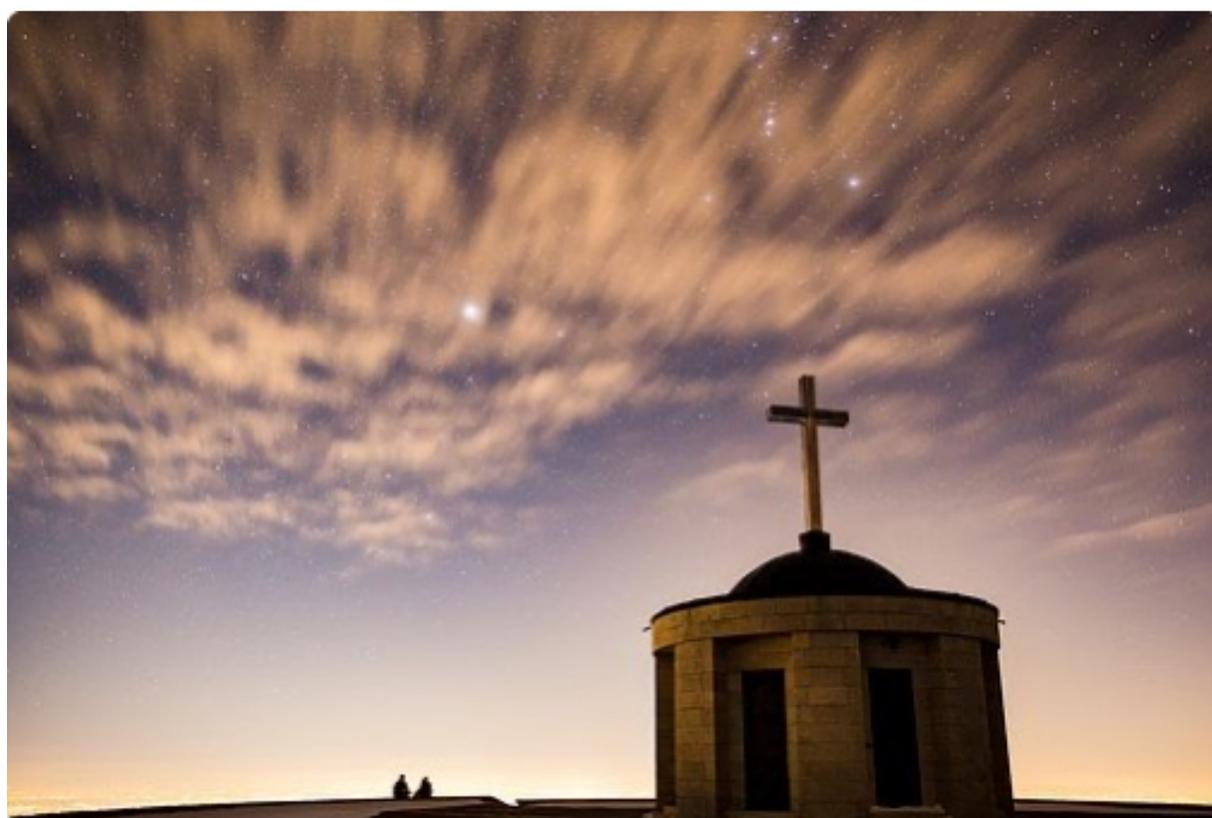
## ◆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 갑자기 찾아온 온라인 예배

교회는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에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 문제로 토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치열할 것이고, 논란과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예배 자체가 부정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논의가 합의점에 이르기도 전에 각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권장하게 되었다. 이는 전염병이 가지는 엄청난 파급력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동안 누구나 생각해왔고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 사태로 인해 긴급동의가 된 탓이기도 할 것이다.

예배당을 떠나 예배하는 것이 두렵고 어색하고 낯선 것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만 보면 이것은 예배의 장소만을 바꾼 것일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한 장소에서 한 공동체로 예배하던 것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각 가정에서도 온전한 예배드리는 것이 준비되고 정착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 온라인으로 예배할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 ▶ 가정 예배가 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할 수 있다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예배 준비에 더 신경을 쓸수 밖에 없다. 이는 나만 있는 곳이 아닌 공동체가 있는 곳에 가서 만나서 예배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집에서 혼자 밥먹는것과 외부에서 손님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당연하고 그 차이는 자명하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옷차림과 준비 시간 등에서 차이가 날것이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때 나는 하나님앞에서 어떤 사람일지를 묻는 책도 있었듯이, 혼자서와 공동체는 그 힘이 다르다.

따라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었을때의 예배와, 혼자 예배하게 되었을때를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더 개인과 공동체에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평소 익숙한 가정이라는 환경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한 가정이 아니라면,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은, 성도들도 하여금 집중되고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한 장소에 대한 구별은 성경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가정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따라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교회에서는 이에 대한 강조와 가정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자세히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 헌금이 줄어들 수 있다

교회에서 예배시간에 헌금을 걷게 되면 그냥 교회 입구에 헌금통을 비치해두었을때보다 더 많이 걷히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정이 어려운 교회에서는 헌금시간에 헌금바구니를 돌리는 경우가 있었다.

요즘은 헌금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져, 교회에서도 예배시간에 가급적 헌금바구니를 돌리기 보다는 입구에 비치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경향이 크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 교회의 헌금이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이미 온라인으로 헌금을 받는 교회라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상황이고, 예배당 입구를 들어갈때 보이던 헌금함도 보지 못한다면, 헌금 내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헌금을 전달할 쉬운 수단도 사라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 헌금을 온라인으로 해야 할 상황이라면, 온라인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서 헌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여러가지의 경우, 교회는 심각한 재정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경제상황이 안좋아지면서 교회마다 성도들의 십일조 비율이 낮아지고, 돈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하지 않게도 하고,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 헌금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성경에 십일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헌금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더더욱이나 교회의 재정상황은 쉽지 않다.

성도들의 경제환경이 나빠졌고,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큰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는 헌금을 더욱 줄어들게 만들것이고, 교회의 활동을 어렵게 만들것이다.

## ▶ 활동이 위축되고 교세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모이지 않으면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좋아도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파급력이 크지 않다.

온라인으로 예배할때 나타나게 되는 문제는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교감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년부뿐만 아니라 교회학교의 수가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 교회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여성들의 여러 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교회 전체 활동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경제위축의 여파로, 여성 성도들이 일자리를 찾게 되고 교회활동 참여가 낮아지게 되면서 교회의 활동력도 급격하게 안좋아졌음을 체감하게 된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성도들의 이런 활성화된 모임을 모두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버린 교회를 예상하게 되면 향후 교세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아이들의 경우 더욱 만나서 하는 활동이 중요하고 또래 집단이 중요한데, 서로 만나지 않을 경우 교회학교 활동은 당연히 위축될 것이다. 대신에 다른 곳과 다른 방법에서 그동안 교회가 주던 것을 대체할 것이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때 안타까운것은 사람이 만났을때 체감하게 되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교감을 할 수 없다는데 있다. 텔레비전으로 콘서트를 관람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관람하는 것과의 차이만 생각해도, 이 차이는 너무나 클 것이다. 더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이 함께하시는 예배, 영적인 예배인데, 영성이란 것을 온라인과 연계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는 현재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이런 여러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 온라인 예배 실전으로 준비하기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경우,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준비가 필요하다. 요즘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손쉽게 따라할 만큼 쉬워서, 누구라도 편하게 사람들과 영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교회도 이런 방법으로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다.

온라인 예배할 때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예배순서를 준비하는 것과, 이것을 성도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술 두 가지 뿐이다. 이 둘이 준비되면 우선은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실제 기존에 드리던 예배형식으로 드리되 예배당에 성도들만 없는 상태로 드리는 방식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식으로 좀더 가정에서 드리기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해 드리는 방식인지를 결정해서 준비해야 한다.



## 교회에서 준비

### ▶ 실시간 중계 프로그램 (스트리밍 서비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찍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를 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우선은 대표적이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YouTube가 있고, Vimeo라는 곳도 있다. 좀더 개인적인 방법을 이용한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성도들 다수가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없이 이용하려면 이미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유튜브’나 ‘비메오’를 이용해 공유주소를 전송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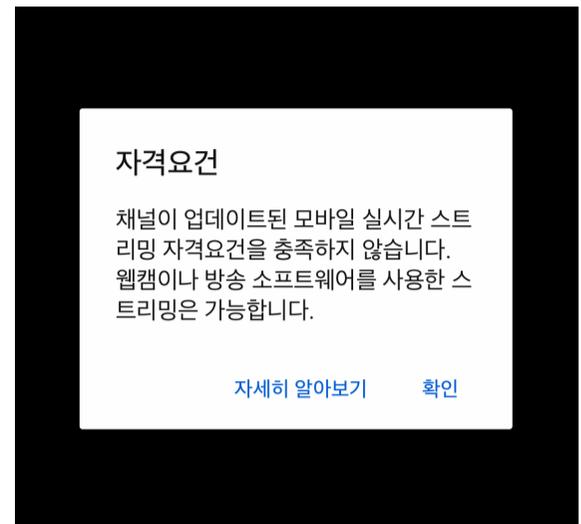
‘유튜브’의 경우 가입한 후 24시간이 지나야 방송이 가능해지기때문에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비메오’의 경우 월 비용을 내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스트리밍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후 예배 중계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컴퓨터에 달려 있는 ‘웹캠’으로도 할 수 있다. 또 예배당에 기존에 설치된 영상 시스템에 장비만 추가 부착하여 중계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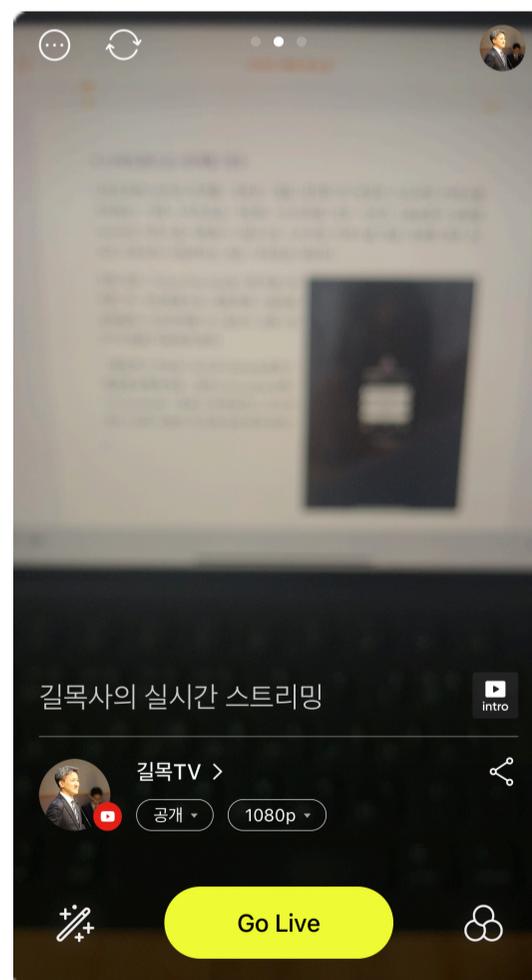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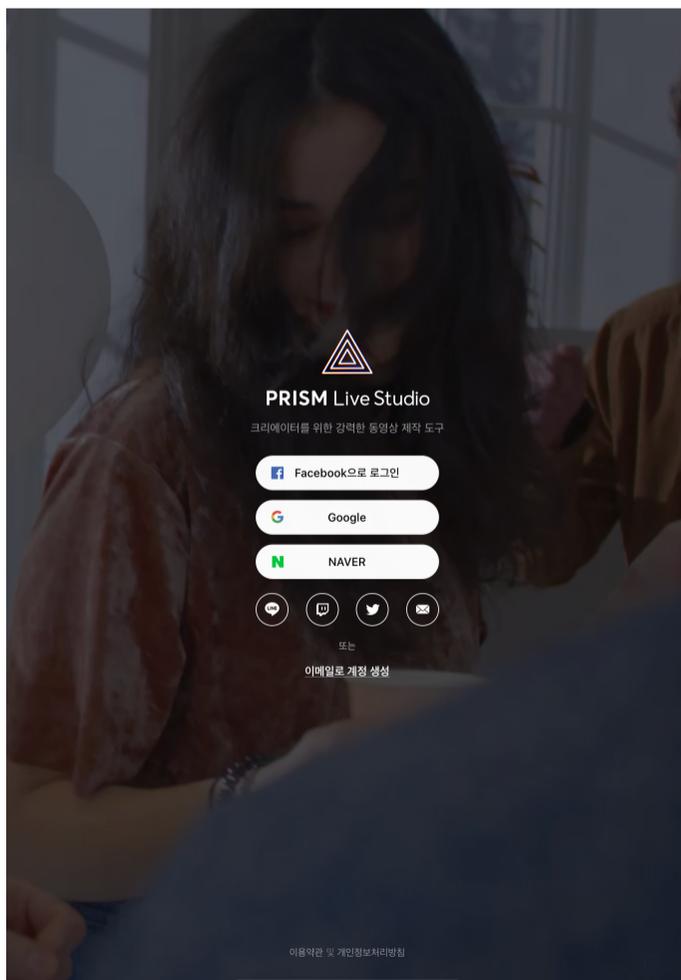
## ▶ 스마트폰으로 중계할 경우

스마트폰에 실시간 중계할 '유튜브' 앱을 설치한 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때 스마트폰을 사용해 스트리밍할 경우 구독자 1000명이 안되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또 스트리밍 서비스를 처음 사용할 경우 24시간 이후부터 사용하다는 점도 기억하길 바란다)



이럴 경우, Prism live studio 앱을 설치한 후 구글계정으로 연동하면 1000명 상관없이 스트리밍할 수 있으니 급한 경우 이 앱을 이용하면 좋다.

(앱설치->구글로 로그인->Ready클릭->채널을선택하세요 클릭->Youtube선택->Youtube로 연결->공개설정->스트리밍!!->이후 유튜브 주소를 공유하면 된다)



녹화할 때, 스마트폰과 설교자가 간격이 크면 오디오 전달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이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때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온라인예배할때 사실 비디오보다 오디오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유선 핀 마이크나 무선 핀 마이크를 구매해서 사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핀마이크는 일반 핀마이크와는 다르기 때문에 꼭 핀수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또 주변음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단일지향성 마이크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마이크 수화부쪽에서 들리는 음성만 주로 들어가게 하는 마이크다.

손쉽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몇가지를 추천해본다.

유선 - 보야 핀마이크 (약 12000원)



무선 - 로데 와이어리스고 (약3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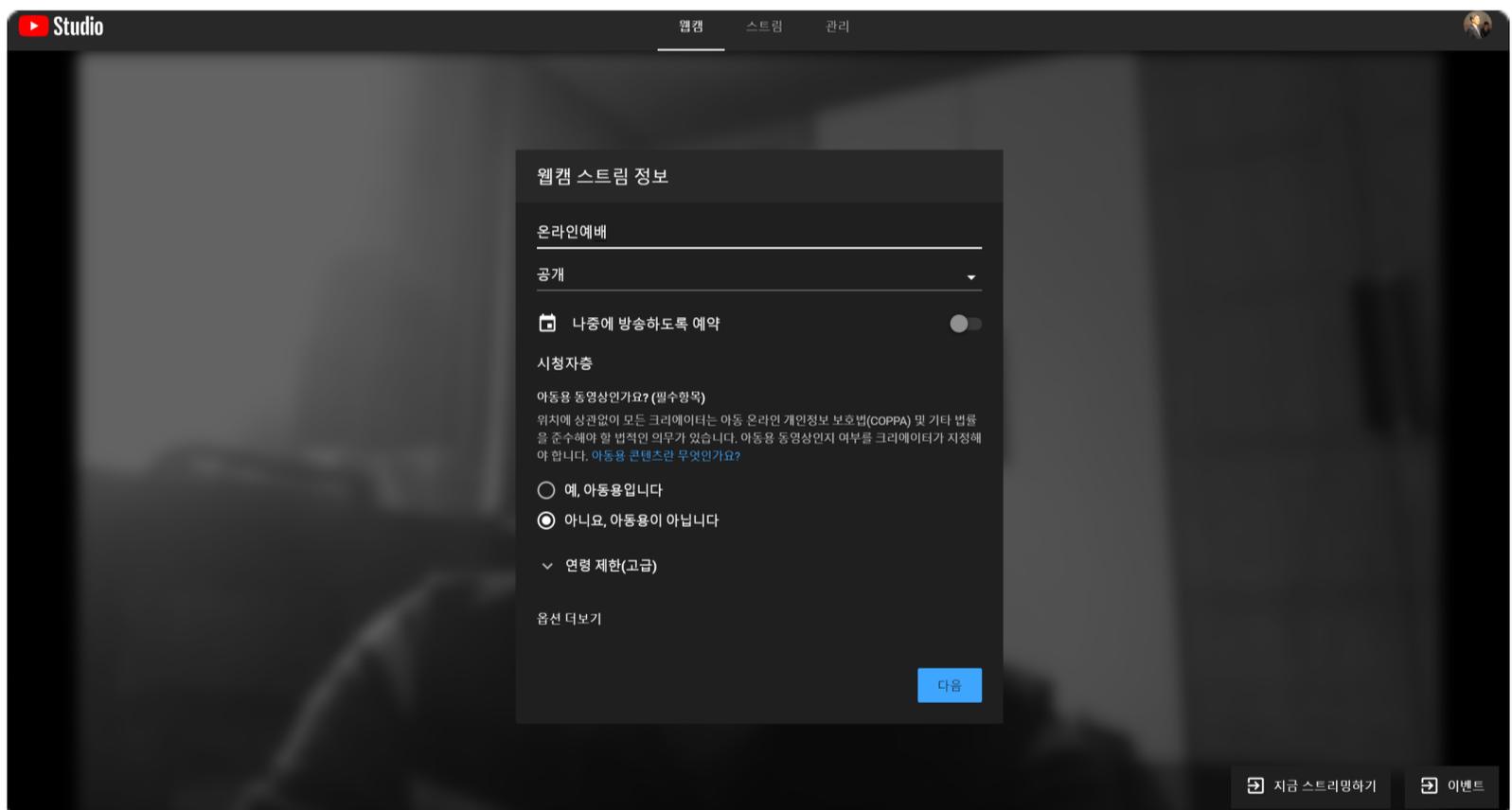
보야 BY-WM8 PRO K1 (약13만원)



## ▶ 노트북으로 할 경우

노트북이 있고 노트북에 웹캠이 달려 있으면 유튜브를 이용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로그인한후 '동영상'을 눌러 '스트리밍'을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이때 오디오는 스마트폰 할때와 같이 따로 핀마이크를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노트북의 웹캠은 대부분 화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 ◆ 기존 방송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기존 교회에 설치된 음향 시스템이 있고, 비디오도 스위처까지 있는 경우 이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송출만 하도록 준비하면 된다. 이럴 경우, 기존 장비의 신호를 컴퓨터로 입력 신호로 바꾸어주는 단계가 필요하다.

오디오의 경우 앰프를 통해 나오는 출력단자를 3.5잭으로 컴퓨터에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 비디오의 경우만 신경쓰면 된다. 스위처 장비가 있는 경우 스위처의 출력인 hdmi를 USB 캡처장치를 통해 컴퓨터로 입력만 하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가 가능하다.

방송장비가 없고 캠코더나 카메라 한대만 있는 경우에도 hdmi출력 단자를 캡처장치를 이용해 컴퓨터로 입력하면 된다.

hdmi를 신호를 캡처장비를 통해 usb로 컴퓨터로 입력할 수 있는 장비는 워낙 많다. 전문적인 곳에서는 알아서 할테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비를 소개해볼까 한다.

이 장비를 구입해 기존 카메라나 dslr 등의 출력단자에 물려 컴퓨터로 입력한 후 컴퓨터에서는 이 영상신호를 유튜브로 송출하면 되는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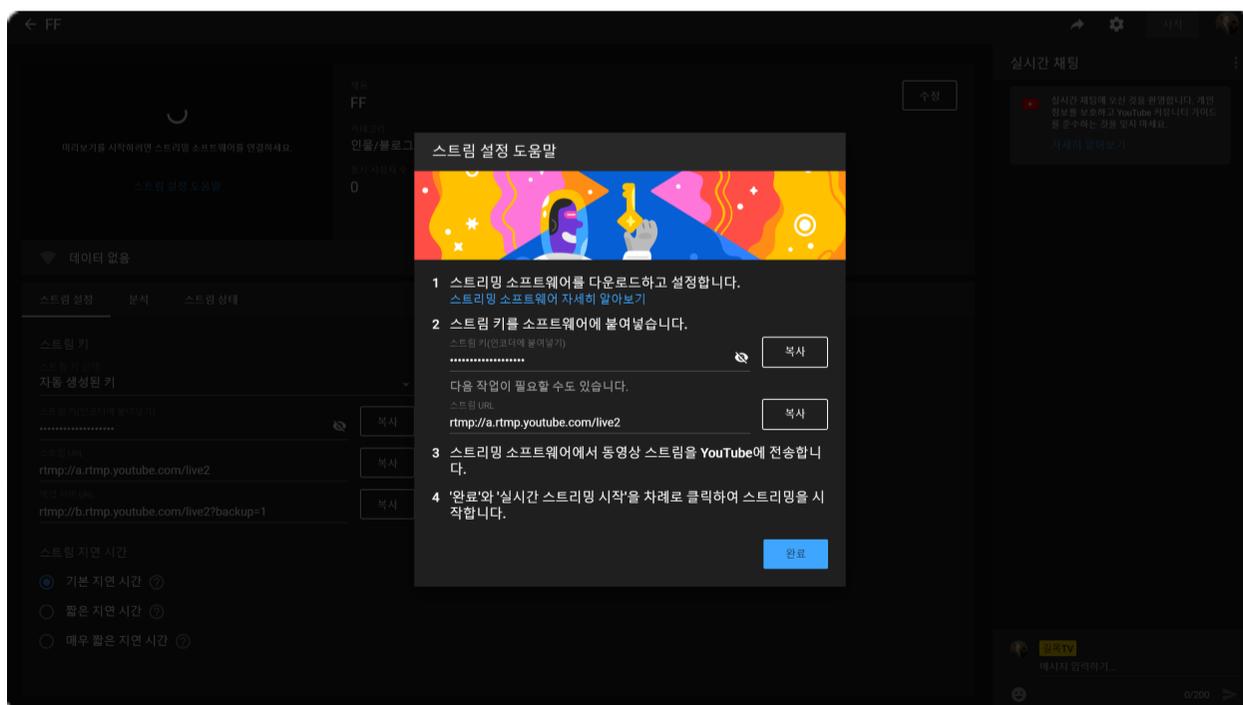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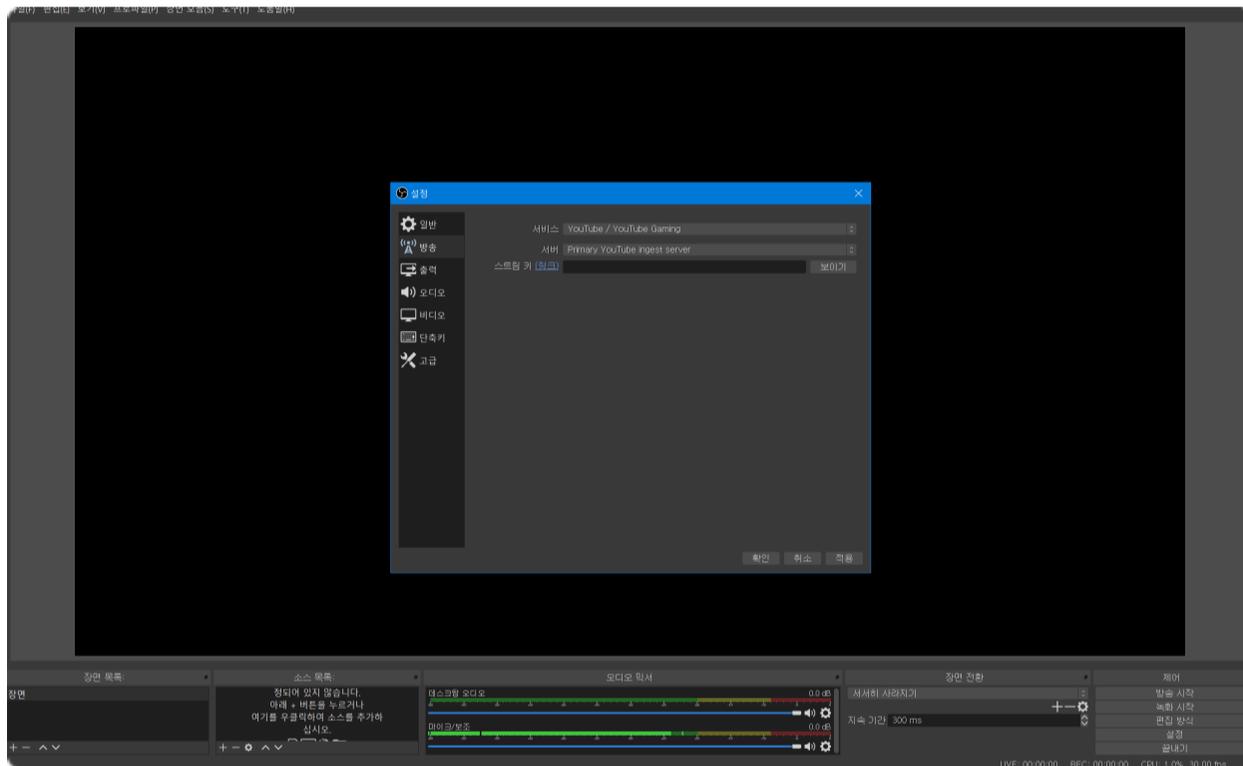
아이오데이터 GV-HUVC HDMI캡처카드 (약20만원)



AVerMedia Live Gamer Extreme2 캡처보드 (약22만원)



위 캡처보드로 장치 구성이 되었으면, 그 뒤 영상을 유튜브로 인코딩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OBS(Open Broadcaster Software)를 사용한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후, 왼쪽 하단에 있는 '소스목록'에서 '+'를 눌러서 비디오캡처장치를 선택하여 웹캠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다. 이후 유튜브 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에 들어가서 '스트림시작하기'를 누르면, 스트림키가 나오는데, 그걸 OBS의 '파일'-'설정'메뉴에 들어가 스트림키를 입력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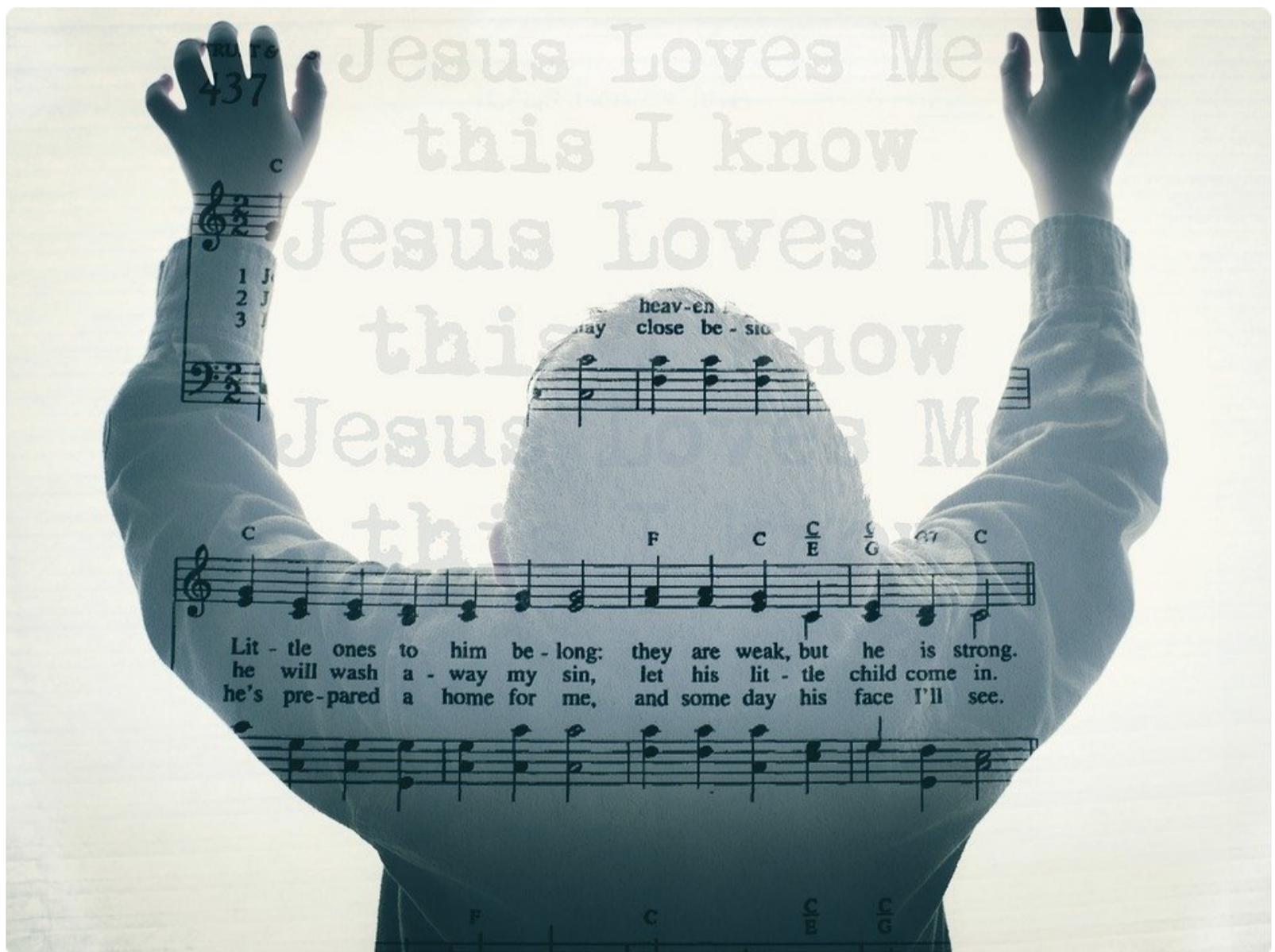


## 유의해서 구성해야 할 순서

### ▶ 찬양대

예배인도로 시작해서 축도하기까지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면 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찬양시간일 것이다. 같이 모이지 않아 찬양대가 설 수 없으니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만큼은 독창할 분을 선정해서 교회로 와서 미리 준비하게 하거나, 기존 찬양대 특송곡을 영상으로 준비해서 띄우거나, 아니면 감동적인 찬양영상을 준비해서 재생하는 것도 좋을것 같다.



## ▶ 헌금

헌금시간도 문제가 된다. 헌금함을 입구에 비치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시간에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일반인데, 성도들이 당일 헌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실시간으로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헌금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도록 안내하고, 배경음악을 깔아주는 것이 좋다. 계좌이체를 하도록 시간을 배려하고 이 시간동안 성도들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는 시간으로 2-3분 정도 보내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매주 헌금은 필요하다. 교회학교 꿈나무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헌금의 상당수가 이용되고, 현재 교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목회자 생계비도 상당하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교회의 헌금이 줄어들게 되면, 개교회에서 세운 예산안 부족으로 인해 교회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시에도 교회 계좌로 헌금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적절해보인다. 헌금에 대한 신학적인 토론은 나중에 기약해보자.



## ▶ 설교

목회자들은 온라인 예배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영상 자료와 PPT 자료 등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설교할 수 있으니, 이 기회를 살려서 준비하면 좋겠다.



## ▶ 주보

주보는 온라인예배가 드러져 사실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이미지나 PDF파일로 전달되면 순서 전달과 교회 소식 전달에 아직 유용하니 성도들에게 예배 순서와 소식 전달을 위해 활용하면 좋겠다.

아울러 교회 단위로 새로운 주일예배를 기획할때, 가정에서 순서지를 통해서만 따라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세한 안내가 있는 주보지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배부하면 좋겠다.

## 성도들 준비

### ▶ 예배준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예배중계가 온 가족들에게 잘 보여질 수 있도록 방송적인면 준비와 예배를 드릴때 필요한 성경책과 헌금 등을 미리 준비하고 예배드릴 장소를 단정하게 준비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필요하다.



예배전에는 예배 10~20분 전부터 가족들이 함께 가벼운 음료나 커피를 마시며 담소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 ▶ 방송시청준비



인터넷이 바로 되는 TV는 교회에서 제공한 스트리밍 주소를 바로 입력하면 되고,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스마트폰을 TV로 HDMI 선을 통해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과 TV의 HDMI단자에 연결하는 케이블 또는 젠더다. 케이블은 다이소나 24시간 편의점, 이마트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HDMI 케이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간 컨버터가 필요할텐데, 이것 역시 전자 마트나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하실 수 있다.

## ▶ 헌금

헌금은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귀중하게 사용된다. 어린 학생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믿음을 계승하도록 쓰여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돕는데 쓰여진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받는 건물을 유지하는데도 사용된다.

헌금은 누군가에게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직접 무언가를 사용하는 댓가로 주는 사용료도 아니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헌금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시간이 아닌 누군가에게 주는 아까운 마음으로 드린다면, 이는 예배 시간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헌금이 드려진 후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에서 위임하여 세운 사람들에게 그 사용을 믿고 맡겨 함께 결정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헌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어려운 시국에, 멀리 떨어져 예배할때에도 헌금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견고히 서 갈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시에도 계좌이체를 통해 헌금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가능하면 가족들이 예배할 준비를 마치고, 계좌 이체를 미리 준비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 ◆ 가정예배로 드리기

### ▶ 예배당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하기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예배당에 들어가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소비자(?)로만 참여해왔던 성도들이 생산자(?)로 예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기도 순서도, 예배 인도도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은데, 설교 순서까지 가정에서 가장이 담당해 진행해야 한다면 이는 실로 어렵고도 난처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이 상황을 기회로 선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제한된 시간에 마쳐야 하는 여러 제약 때문에, 예배시간에 있어야 할 깊은 묵상과 공동체원들의 다양한 참여와 친밀감이 부족했던 것을 가정예배를 통해서 갱신해보면 좋겠다. 이번기회에 각 가정에서 이런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가정예배들을 개발해 성도들에게 제안해보면 좋겠다.



## ▶ 예배순서 제안

설교시간을 말씀읽기와 듣기 그리고 나눔 시간으로

각 가정에서 따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 설교 시간이 가장 문제가 된다. 가장이 설교문을 그냥 읽어다가는 것도 좋겠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유익을 살려내지 못하고 자칫 의미없는 글읽기에 머무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때에는 성경본문을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읽게 하고, 묵상한 후, 느낀 바를 나누는 시간으로 보내면 좋을 듯하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요점과 결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몇가지를 정리해 각 가정에 배부하면 좋을 것이다.

그냥 읽기만 하는 것보다, 한번은 돌아가면서 읽고, 그 뒤에는 성경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좋다. 우리 교회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는데, 개역개정판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읽고 그 뒤 메시지 성경을 듣는다. 드라마 바이블이나 그 외 성경을 읽어주는 낭독 성경이 앱으로 많이 있으니 그걸 이용하면 쉽게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성경 본문의 말씀이 더 생생하게 와 닿는다.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없다. 그래서 더욱 쉽게 나누고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중보기도를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으로

늘 예배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아닌 외적인 문제를 기도하기에 바빴다면 이번에는 가족들이 기도 시간에 무엇을 기도할지를 의논하고 함께 이를 위해 돌아가면서 기도하거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서로의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나누고 그 문제를 기도제목으로 삼아 기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기도에 힘이 있을 것이다.

### 찬양을 가족 합창과 자녀들 특순으로

찬양시간에는 가족들이 찬양곡(복음송 포함)을 선곡해 다같이 불러보면 좋겠다. 온가족이 한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자녀들이 악기를 다룬다면 한팀으로 멋진 하모니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 축도를 축복의 시간으로

예배를 마칠때 목회자가 축도를 한다. 이때 가족들이 한명씩 서로에 대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에 가장이 고린도후서 13:13의 말씀으로 온 가족을 축복해주거나,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후 축복의 시간을 가지면 더욱 좋을 것이다. 기도 아니면 주기도문을 같이 고백하고 마쳐도 좋겠다.



## ◆참고 글

###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안드린다고?〉

1. 대구지역 신천지 코로나19 감염때문에 말이 많다. 이 사건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진노 공식이 더 힘을 받을 것 같다. 감염되는 것은 누구나, 또 어디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질병에 감염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해서 안될 것이다. 윤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신천지 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다만 병에 걸리고 나서의 신천지가 취한 결정과 행동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고 그런 부분은 책임질 부분이 필요할것이다.

여러 교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폐하거나 모임을 취소하는 등의 결정을 한다. 이때 예배를 폐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간혹 있고 이를 경건하지 못한, 믿음없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본질과 비본질을 분명하게 가리면 좋겠다. 이런 결정이 믿음없는 행위라고 하기에는 근거도 그 신앙적 기반도 옳지 않다.

해외로 출장을 갈때에도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병원에 입원했을때에는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움직이지 못하는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그와 같은 기준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질병이 감염될 수 있는 위험과 그로 인해 발생할 교회에 더 큰 문제를 미리 방지 하기 위한 조치로 이런 교회의 결정은 어쩔수 없는 아쉬운 선택일 뿐이다. 그런데 향후 발생하게 될 상황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경건함만을 드러내는 이런 비난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발빠르게 행동하면서 일반인들이 교회를 몰상식과 합리적 사고가 마미된 집단으로 보던 것에서 벗어나게 해줄것이다.

2. 교회에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각 교회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계획 세우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듯 하다.

- 성도들이 평소와 같이 동일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요즘엔 실시간 예배중계가 그리 어렵지 않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실시간 예배중계가 가능하다. 실시간 중계 주소를 성도들에게 문자로 안내해 주면 각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틀어놓고 예배가 가능하다.

이런 준비도 안한 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더구나 실시간도 아닌 느즈막히 올라오는 설교방송만 보고 예배하라고 공지만 하는것은 많이 아쉽다. 설교만 보는 것이 예배로 충분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 모든 성도들이 인터넷 예배가 가능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럴 경우 주보가 주일 다되어서야 나오기 때문에 교회로 주보를 가지러 올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럴 경우, 주보 인쇄를 취소하고, 그 돈으로 핸드폰으로 주보를 문자로 이미지로 보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은 스마트폰 주보가 활성화 되어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교회는 문제가 안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번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란다.

- 건물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고,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이 때문에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 지침을 만들어서 전달해줄수 있으면 좋겠다. 목회자라면 모를까, 그냥 주보를 가지고 평소처럼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성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기회에 실시간 중계보다는 가정예배의 틀을 제시하면 어떨까? 주일 예배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가정예배가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정에서 가족끼리 좀더 친밀하게 평소 주일예배시스템에서 다수의 회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략하거나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제안하면 좋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주일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드리는 가정예배를 구성하시면 어떨까 한다.

- 찬양곡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쉬운 곡으로 또 복음성가들도 선곡한다.
- 가장더러 설교하라고 하기 보다, 설교 본문을 여러개 선택해서 본문의 말씀자체를 읽어볼 수 있도록 말씀시간을 구성한다. 쓰여진 설교문을 대신 읽는 것도 가정에서 실제 인도되는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그리 적절한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나누어서 읽을 수 있도록하고, 본문은 아이들도 다같이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 중심의 예수님 이야기나 역사서 등을 선택해서 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좀더 신경을 쓴다면 새번역성경이나, 메시지성경의 본문들도 같이 제공하여 개역개정성경과 읽기 쉬운 위 성경으로 두번 읽는 것으로 한다면 설교가 없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드라마 바이블과 같은 오디오 성경낭독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설교 본문을 읽고 듣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 앱으로 틀어놓고 듣고 성경을 보는 것으로 꾸며도 좋을것같다.

- 말씀을 읽은 후 가족들이 읽은 후 생각한 것과 느낀 것을 나누는 시간으로 보낸다. 딱딱한 설교문으로,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는 것이 가정예배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이다.

- 예배 드리기전 가족들이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벼운 음료수나 커피 등으로 대화시간을 보내고, 예배후에는 가족끼리 오랫동안 집에서 요리를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3. 교회에서 건물로 주어진 곳에서만 예배했던 성도들에게, 이번 기회는 언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고민을 던져주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물에 다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를 못드리는 사람이었는가를 고민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건물에만 모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생활을 계속 해왔다면, 지금은 어디서든 언제든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훈련하는 시간도 될 것이다. 예루살렘교회가 박해로 여러곳으로 흩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사실 이 메시지가, 신종코로나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비난을 퍼붓는 메시지보다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으로 비난하기보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본질을 생각하고 기념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저주!?!〉

1.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현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맞다고 수긍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분노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재난으로 오는 것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범죄하고 불순종할때에 여러가지 자연재난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때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자연재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형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자연재해로 인한 심판도 명확하고, 가장 확실히는 노아의 방주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인류에 대한 심판을 홍수라는 거대한 자연재해로 나타내셨습니다.

3.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가장 큰 오류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자로 세우신 분은 오직 예수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가장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4.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그것에 치어 죽은 사람들이 18명이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그 죄의 댓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눅13:4]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죄하고 혐오하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결코 우리중 어느 누구 낮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5. 욥이 재난으로 자식들을 다 잃고 그의 재산도 사라지고, 심지어 중병까지 얻게 되었을때, 주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알고 있었고, 사람들도 ‘거봐,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했는데, 그런걸 보니 넌 죄지었어. 죄로 인해 그렇게 된거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이 아닌, 가장 친한 절친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친구도 아니고 신앙이 투철하고 영적 신비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평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옳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욥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그리 높거나 고상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다 아는 체 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땅에서의 제대로 된 삶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대상에는 장차 배신하고 죽게 될 가룟유다도 포함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거부할 베드로도 속해 있었습니다. 온전하고 정결하고 죄 없는 대상만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된 인간 모두가 서로에게 사랑할 것을 간절히 원하신것입니다.

6.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짓지 말고 살라는 간절한 요청이 나타납니다. 나 자신보다 남에 대한 죄만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 정죄를 함부로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탄하셨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자칭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남들을 정죄하기에 바빴던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고, 대제사장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기도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수 없다고 말씀하신 대상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룩하게 주여 주여를 잘하는 모습으로 꽤 괜찮은 모습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7. 우한에서 병이 발생했을 수 있고, 그곳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곳이 포함된 중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악한 일들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되었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에 임한 재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며 나는 아니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이곳,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스템은 기독교를 박해한것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난이 임하는 것에 대해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가운데 진행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면서, 내 손에 돌 하나 드는 행위를 할 뿐인 것입니다.

만약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한 조소와 나와 비교를 통한 우월감에 젖어 있는 모습이 아닌, 지금 내가, 우리 사회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땅에서의 사랑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찾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처럼 되지 않도록 겸비하고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8.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쉽게 정죄해서는 안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품으셨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부터의 철저한 회개가 먼저 필요할 뿐입니다.

펴낸이\_ 이길주

펴낸곳\_ C.S.I BRIDGE

펴낸날\_ 2020.2.23

가정에서 온 성도와 함께 드리는

# 온라인 예배 메뉴얼

